

## “기업인은 이 시대 진정한 愛國者”

지난 9일 포천 용정회관에서 김문수 경기도지사를 비롯한 고조흥 국회의원, 박운국 포천시장, 기관단체장, 기업인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포천상공회의소 주최 2007년도 신년인사회를 가졌다.

이날 행사는 제1부 내빈소개에 이어 포천상공회의소 회장 대화사, 경기지사사 포천시장, 국회의원, 포천시의회 의장 축사로 진행됐다. 또 제2부 행사는 내빈들의 시무떡절단에 이어 황성택 농협시지부장의 건배제, 만찬 순으로 진행됐다.

김인만 포천상공회의소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김문수 도지사는 국회의원 시절 박근혜 한나라당 전 대표와 초창기 포천상공회의소를 방문해 상공인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한 바 있다”면서 “오늘 신년 인사회에 덕담을 나누기 위해 다시 찾아 주어 매우 감사하다”고 말했다.

또 김 회장은 “포천시 지역이 날로 발전할 수 있도록 김문수 지사의 각별한 배려가 있기를 다시 한번 부탁한다”며 “포천상공회의소가 3년이란 짧은 세월속에 걸음마를 시작해 뿌리를 내리고 상공인을 위한 권익향상과 지역발전에 조금이나마 제 몫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2007년 정해진 돼지해를 맞아 포천시민과 상공인들은 올해 강인한 멧돼지의 체력처럼 지질 줄 모르고 앞만 향해 나가는 강직성과 영리하고 냉철한 대응성으로 이윤을 창출하고 기회와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한해가 되리라고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김 회장은 또한 “현재 국내기업은 엔·달러의 하락과 고유가로 인한 수출산업 경쟁력 약화, 내수경기 침체와 기업투자 부진, 청년실업 등 열악한 환경속에서 영속과 생존을 위해 몸부림 치어하는 현실에 처해 있다”면서 “회장으로서 소망이 있다면 포천상공회의소 회관을 조속히 건립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자리에 참석한 김문수 경기도지사는 “기업인들은 일자리를 창출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운영될 수 있도록 많은 세금을 내고 있다”면서 “황금 돼지해에는 기업인들이 활금돼지처럼 귀하게 대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김 지사는 “대한민국에서 기업하기가 너무 힘들어 중국과 동남아 등으로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찾아 떠나고 있다”면서 “그동안 공무원들이 기업을 괴롭혀 왔다면 이제는 기업인과 기업을 섬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약조 건 속에서 열심히 기업활동하고 세금 잘 내는 기업인들은 이 시대의 진정한 애국자”고 말했다.

김 지사는 이어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와 규제완화 등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고조흥 국회의원에게 박수를 보내달라”면서 “2월 정기국회때 군사시설보호구역 규제완화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하승만 기자 forme65@paran.com

### 포천商議 신년인사회, 김문수 경기도지사 밝혀 김인만 회장, 상공회의소 회관 건립 조속 희망



지난 9일 포천 용정회관에서 김문수 경기도지사를 비롯한 고조흥 국회의원, 박운국 포천시장, 기관단체장, 기업인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포천상공회의소 주최 2007년도 신년인사회를 가졌다.

### 지금 포천은 이렇다 ⑬ 봉화골(아미) 산업단지 어떻게 되나

#### 올 하반기 착공 2009년 분양 예정 기반시설 확충 인센티브 제공 필요

그동안 사업추진이 지지부진했던 영북 지방산업단지 조성 사업이 본격 추진된다.

포천시에 의하면 토지개발공사 혹은 산업단지공단 등 사업자 선정을 마치고 이달말경 경기도에 지방산업단지 지정, 4월 토지보상 협의 및 실시계획 수립, 7월 관련 영향평가 협의 및 실시계획 승인절차를 거친후 올 하반기에 착공에 들어갈 계획이다. 착공후 2008년12월까지 1년 여간의 공사기간을 거쳐 2009년 분양에 들어갈 예정이다.

포천시는 이에 앞서 지난해 연말 산업단지가 들어서는 야미리의 옛 지명인 봉화골 산업단지로 명칭을 변경했다.

봉화골 산업단지는 영북면 (주)엘리아테크를 선정된 바 있다. 그러나 최첨단 OLED산업을 유치하기로 했던 (주)엘리아테크는 사업계획 불투명으로 사업수행 능력이 없다고 자진포기 의사를 밝혀왔다. 포천시와 MOU를 체결할 당시 엘리아테크는 자신들이 최첨단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고 밝혔으나 그 기술은 이미 대기업에 추월된 상태였다고 한다. 사업자를 다시 지정해야 함에 따라 한국산업단지공단과 토지공사 등 사업시행자 재평의를 해야 하는 과정으로 인해 사업추진이 지연될 수밖에 없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봉화골 산업단지가 성공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먼저 37번 국도 확장 등 기반시설 문제를 확실히 해결해야 한다. 또 물류비용 등을 감안해 입주업체에 인센티브 제공 등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하승만 기자 forme65@paran.com



## 군인아파트 대상 절도범 구속 일당 3명 141회 3억2천만원 귀금속 훔쳐

전국 군인아파트를 돌며 계획적으로 절도 행각을 벌여온 일당이 군경 합동수사팀에 의해 붙잡혔다.

포천경찰서와 5군단 헌병대는 지난 7일 군인아파트를 골라 상습적으로 금품을 훔쳐온 성모(43세, 경기도 구리시, 특수절도 등 11번) 등 3명을 특가법상 절도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구속된 성모씨 일당은 지난해 12월 29일 오후 5시경 강원도 철원군 김화읍 소재 한 군인아파트 내 4가구에서 금 목걸이와 금반지 등 700여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치는 등 서울과 경기, 강원, 충청도 등 전국 군인아파트를 상대로 총 141회 차례에 걸쳐 상습적인 절도행각을 벌여왔다.

경찰은 지난해 1월부터 군인아파트를 상대로 발생한 141건의 주

절도 사건을 분석한 결과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던 아파트에 이들이 범행을 할 것으로 예상하고 지난 12월30일 오후 5시40분경 잠복근무 중 피의자 성모씨와 정모씨 등 2명을 격투 끝에 검거했다.

또 경찰은 이들의 차량에서 귀금속 5점과 상품권 4매 등과 이들이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전국 군인아파트 현황 및 범행한 장소를 표기한 범행일지 등을 증거물로 압수했다.

아울러 피의자 애인 김모씨 주거지를 수색해 다이아몬드 84개 등 100여점을 압수하고 범행에 사용한 운동화 등 증거물 10점도 함께 압수했다.

조사 결과, 이들이 갖고 있는 자료에는 국가 보안 사항인 전국 군부대 명칭과 위치, 군인아파트 주

소 등이 적혀 있었고 이들은 자신들이 침입한 아파트에 대해서는 별도로 표시한 뒤 범행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압수품목 및 금액  
성모씨 등 3명은 전국 군인아파트를 돌며 141회에 걸쳐 3억2천만 원 상당의 귀중품을 훔쳤다. 포천경찰서에 의하면 이들은 지난해 1월부터 1년여간 경기북부와 강원도 지역 군인아파트를 대상으로 140회 침입해 가구당 평균 228만원 상당의 현금과 귀중품을 훔쳐 달아났다.

경찰이 이들로부터 압수한 귀금속은 장물로 처리하고 남은 다이아몬드 54점과 목걸이와 귀걸이, 반지 등 45점, 미달러 및 연화 24만원 상당, 상품권 22장 등이다.

계급별 군인 피해자는 부사관급

이 59건으로 가장 많고 위관급 42건, 영관급 18건, 군무원 등 기타 21건 등이다.

피해액의 경우 부사관급 1억6천 300여만원, 위관급 9천500여만원, 영관급 3천700여만원 등이다.

또 부사관은 비취목걸이와 진주 등 1천300여만원 상당의 귀금속을 도난당했으며, 또다른 부사관은 현금과 금목걸이 등 1천100여만원을 도난당했다고 신고했다.

또 36개 아파트에서는 다이아몬드 반지를 도둑맞았다고 신고했고 500만원 이상 금품을 도둑맞았다고 신고한 군인 가족이 18명이다.

경찰 관계자는 “합동조사 결과 성모씨와 정모씨는 2001년 절도 혐의로 수감된 감방 동기로 밝혀졌다”면서 “일반인들의 예상과 달리 군인아파트 경비가 매우 허술했다”

고 밝혔다.

■군기밀 유출여부 조사  
軍警합동조사반은 23개 사단급 부대의 주소와 48개 군인아파트 단지 주소가 적힌 리스트가 발견됨에 따라 군 내부 보안에 허점이 있는 것으로 보고 조사하고 있다.

군부대가 밀집해 있는 경기북부와 강원, 경북지역 군부대 주소까지 적혀 있고 몇몇 군부대에는 별표까지 해 놓았다.

조사결과 성씨와 정씨는 지난해 5월부터 10월까지 서울 육사에 근무하는 장교와 부사관 주거지인 2곳의 아파트를 5차례나 침입해 절도행각을 벌여왔으며, 정씨가 말을 보고 성씨가 아파트 뒤편 가스배관을 타고 올라가 방 유리창을 깨고 들어가는 대담한 수법을 사용했다.

수사팀은 지난해 포천시와 철원군을 잇는 국도 47번 국도와 43번 국도에 인접한 군인아파트가 이들의 범행대상이 될 것으로 보고 한 번도 도난당하지 않은 군인아파트에 잠복해 왔다. 결국 5일 철원군 모 군인아파트에서 3일째 잠복 근무중이던 군경합동수사팀에 검거됐다.

하승만 기자 forme65@paran.com

<http://www.smcoating.com>

## 최첨단 기술 UV코팅 산업을 이끌어가는 친환경 글로벌 기업 SM

### SM UV Coating

고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SM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보여 주시는 고객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 SM은 끊임없는 노력과 탐의 결실로 개발한 신개념의 표면처리 기술을 바탕으로 UV 코팅 산업의 새로운 세계를 열어가고 있습니다.

급변하는 사회와 더불어 코팅 산업의 분야도 빠르게 확장하고 있으며 가정의 쾌적한 실내환경 및 전반적인 경제적 효율성 증대로 인한 우리의 즐거움 일상생활 속 SM이 함께 자리잡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SM은 국내에서 검증된 기술의 우수성을 바탕으로 끊임없는 경영혁신 및 고객에 대한 최적의 서비스를 더욱 가속화하여 세계의 중심에 우뚝 서는 기업으로 성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첨단 UV코팅 분야의 global leader로 도약하는 SM, 그 새로운 미래를 여러분과 함께 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식회사 SM 대표이사 송중채

#### SM PRODUCTS

- **가구/인테리어**  
모든 가구는 SM 특수 코팅 기술로 친환경 인테리어로 바뀝니다.
- **가전**  
은나노 표면처리 및 color 코팅기술로 모든 소비자 가전 제품이 upgrade 됩니다.
- **썬팅(Window Film)**  
Scratch resistant 특수 코팅기술로 고기능의 윈도우 필름이 제작됩니다.
- **광고(Canvas)**  
SM 특수 UV 표면처리 기술로 보다 선명하고 살아있는 듯한 광고 연출이 가능해집니다.
- **SM SERVICE**  
고객에게 필요한 차별화된 제품개발을 위해 기획단계부터 참여까지 hit 제품 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품개발 완성단계까지 최적인 맞춤형 개발 솔루션을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 SM 서울사무소 · 서울시 강남구 청담동 53-4 남도빌딩 801호 Tel: (02) 542-0520 Fax: (02) 542-3711

■ SM 공장/연구소 · 경기도 포천시 군내면 용정리 47-9 Tel: (031)536-1604 Fax: (031)536-1606